

나의 희생제물은 살아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창 22:9).

:

우리는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죽음’이란 희생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한’ 희생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원하십니다. 곧 우리의 ‘삶’이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겠나이다”가 아니라 “제가 주님과 함께 죽어 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되게 하겠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진행됩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서도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단 한 가지, 곧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체가 됨으로써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죽음을 위해 당신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산 제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당신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입니다.

나의 희생제물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창 22:9)

1.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희생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한’ 희생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삭의 죽음도 불사하는 아브라함의 ‘희생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제사’로 이삭을 받기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산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서도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단 한 가지, 곧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제물’이 무엇인지 알아도 쉽게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무용하게 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후하게 넘치도록 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2. 순종으로 우리는 ‘산 제물’이 됩니다.

‘죽으면 사는 진리’의 비밀을 알 때 기독교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2:20).”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음을 위해 당신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산제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당신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입니다.”

우리의 포기는 포기가 아니라 순종으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산제사를 드리는 자 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의 산제사를 통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22:12).”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이런 사

랑의 고백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애절한 초청’입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죽음의 제사’가 아니라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 줄 노트

- ❶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 ❷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죽음의 제사’가 아니라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묵상질문

당신은 오늘 포기하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포기하므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묵상 레시피 | 창세기 22:1-14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창12:1).”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22:2).”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2절)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2절)

하나님은 왜 이 어려운 일을 요구하셨습니까? (1절)

명령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3절)

하나님이 일러준 산에 도착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4절)

순종하기로 결단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5, 8절)

아브라함의 심정과 간구, 믿음을 헤아리며 9-10절을 읽어 보십시오.

이레 **הִנֵּ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8절)에 쓰인 히브리어 이레 **הִנֵּה**는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다’에 쓰인 히브리어 이레 **אָמַן**(두려워하다)와 소리가 같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간구하며 경험한 이들은 그분을 더욱 경외하게 된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이삭의 존재와 의미를 바로 깨달아 진정으로 <소유>하게 된다.

짧은 기도

죽지 않도록 저로 죽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로 두려워하게 하소서.

울지 않도록 저로 통곡하게 하소서.

의심하지 않도록 저로 의심하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뒤흔드소서.

깨지지 않도록 저를 깨뜨리소서.

김영봉_죽지 않도록(목사, 신학자, 저술가) 「사귐의 기도」 242.